

尹시장 “광주형 일자리 성공, 정부도 나서야”

국정자문위·시도지사 간담회

지역 균형 발전 등도 요구

정부, 에너지밸리 등 육성 표명

윤 시장은 광주시장이 지역 균형발전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시장은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없는 분권은 오히려 지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과거처럼 여야 힘의 논리로만 정략적 대립에 머문다면 이는 촛불민심에 반한 것이다”며 “국민 등이 국정의 동반자로 참여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활성화시킴으로써 민주정부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시장은 국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세밀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김태년 국정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어제 총리 임명장 수여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특별한 임무로 생각하고 실행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이 두 가지를 국정철학으로 이행하고, 국정과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적극 듣고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광은 국정자문위원회의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광주의 요구들이 공약으로 반영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가까이서 보니 대통령의 의지는 생각보다 분명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사업, 에너지밸리 사업은 무리없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공항 부지 활용에 관한 내용도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부위원장은 “광주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며 “기회를 만들어 광주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

대된다.

간담회가 끝난 뒤 윤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시작할 뿐 광주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특별법 제정, 세제 혜택,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관해 실무자를 만나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치과재료센터’ 주관기관 전남대 선정

지역 제품 인증 지원

광주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치과재료 및 기기 시험·검사센터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전남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치과재료 및 기기 시험·검사센터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총 30억원(시비 2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들여 광주지역 치과의료기기 제품 인증지원 센터를 위한 사업으로 ▲센터 구축 ▲시험실(비임상 시험관리기준 수준의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게 된다.

광주지역은 생체의료용부품소재산업이 성장해 치과 관련 수도권 기업들이 광주로 이전, 창업 등으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집적화가 가속되고 있고, 관련

기업의 신규 개발 제품에 대한 인증지원이 필요한 기업 수도 증가했지만, 시험·검사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돼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비용으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 치과재료 및 기기 시험·검사센터가 구축되면 제품인증 및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등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산업육성 기반이 조성돼 기업이전과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치과재료 및 기기 시험·검사센터가 구축되면 광주시 주력산업인 생체의료용소재부품산업 기반과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방세 가상계좌 국민·농협·신한은행 추가

자동차세 6월 납부 분부터는 기존 광주은행을 포함,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단일은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5일 국민, 농협, 신한 등 3개 은행과 ‘가상계좌입금서비스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계좌서비스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

해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CD/ATM기,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부여된 은행별·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 확대도 그동안 타 은행 거래로 인한 이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애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편의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로구 통의동 국정자문위원회의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윤장현(광주시장) 부회장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이달의 일자리상 ‘피피아이’ 첫 수상 광주천·황룡강 물놀이철 수질 검사 확대

지난 두달간 청년 15명 고용

민선 6기 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광주시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에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달의 일자리상’을 수여하기로 하고, 첫 수상 기업으로 ㈜피피아이(대표 김진봉)를 선정했다.

‘이달의 일자리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3개월 전 상용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첫 수상업체로 선정된 ㈜피피아이는 1999년 설립된 광진적회로 제조업 전문회

사로 ‘평판형 광진적 회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까지의 고속 통신망인 테넨광가입자망(FTH)의 핵심부품인 광파워분배기와 광파장분배기로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광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연매출액은 2015년도에 비해 50여억원 증가한 155여억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2개월간 15명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차세대 통신망 도입에 필수 불가결한 100G급 트랜시버형 저밀도 파장분할(CWDM) 모듈을 개발해 인텔에 양산 공급이 시작됐고, 미주 도시들의 백분방(기간통신망) 고도화에 따라 50GHz AWG(광파장분배기) 모듈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 빈번해짐에 따라 황룡강과 광주천 중 물놀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덥고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시는 주안호 물이 유입돼 대체적으로 수질이 깨끗한 광주천 상류(용산동 동산아파트 옆)와 황룡강 임곡교 지점에서 6월 2회, 7월과 8월 매주 1회, 9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질을 유지토록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 물놀이철인 7월과 8월에는 주말에 수질검사를 해 수질 권고기준(대장균:500개 이하/100 mL)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 횟수를 늘리고, 4일 이상 연

속 기준을 초과하면 안내방송과 원인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천 상류와 황룡강 임곡교 지점은 지난해에도 하루 수백 명이 물놀이를 즐긴 곳으로,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7년간 광주에서는 물놀이지역에서 수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의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062-613-7581).

서광영 환경조사과장은 “물놀이를 즐길 때는 지인들과 함께 하고, 입수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며 “비가 온 후에는 수심과 수질상태를 고려해 며칠 지난 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학사고 시간이 생명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은 최근 북구 한국교과콜라 광주공장에서 화학물질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구조훈련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무지구 상가 매매

10층 중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상무지구 중심상업내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300만

북구 중흥동 모아A.P.T

전대 정문 2분 .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갈끔)

▶ 매가 2억4천만 (용 1억6,500만)

구분	상가 (소액) 물건 추천
1.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 68평, 건 67평 (실평수), 월세 100만원 ▶ 감정가 2억4,600만 → 최저가 1억3천7백
2. 북구 오룡동 (아파트형 공장)	토 30평, 건 32평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3. 무안군 해제면 (대지)	토지 155평, 일반상업지역, 해제버스터미널 인근 ▶ 감정가 1억6천4백 → 최저가 7천3백
4.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원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5.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이상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6.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19평, 월세 120 예상	▶ 2억6천 → 1억2천
7.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 예상	▶ 5억4천 → 2억4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